

시론

전쟁불구름을 몰아오는 위험천만한 망동

남조선호전세력이 오는 4월 미국과 야합하여 공화국을 목표로 하는 합동군사연습을 대규모로 벌여려고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은 합동군사연습시기를 명확히 밝히고 야외실동기동훈련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떠벌이고 있다. 남조선호전세력의 이러한 망동은 공화국에 대한 로골적인 도발이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염원에 대한 전면도전이다.

남조선미국동군사연습이 북남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엄중히 위협해왔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하기에 남조선위정자들은 내외여론의 지탄을 피하기 위해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감히 내놓고 뼈저리게 벌리지 못하고 《방어적》, 《년례적》이라는 미명하에 《실동훈련이 아닌 콤포터모의훈련》 등으로 간판을 바꾸어가며 벌여왔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그러한 허울마저 벗어던지고 동족을 해치기 위한 외세의 합동군사연습을 언론에 내놓고 공개하며 로골적으로 벌여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위선적으로나마 내내었던 《대화》와 《평화》의 간판마저 집어던지고 대결과 전쟁의 길에 공공연히 나서고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동족에 대한 적대와 전쟁을 생기로 하는 군부호전세력의 무분별한 대결과 북침전쟁책동으로 하여 조신반도정세는 전쟁위험이 최극단으로 치닫는 엄중한 국면에 처하게 되었다.

역사와 오늘의 현실은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호전세력이야말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장본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실히 실증해준다.

남조선호전정권이 외세와 야합하여 명백히 자기들의 선택을 세상에 알린 이상 그에 따른 모든 후파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정 필

더욱더 우심해지는 보수당의 내부갈등

남조선에서 《국민의힘》이 계파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으로 하여 또다시 고질적인 패싸움의 수렁창에 갇히기 빠져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미전부터 퍼져지는 골반이에 양심의 부리가 깊어진 당대표와 그 반대파의 세력권확대를 위한 싸움이 기본을 이루고 있다.

야기되고 있는 《당대표책임론》

《토사구팽》이란 성구가 있다. 이것은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도 필요없게 되어 주인에게 살아먹히게 된다는 뜻으로서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없을 때에는 가져다 버려지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 《국민의힘》안에서 《당대표책임론》이 대두한것은 《토사구팽》이 아니겠는지. ...

지금까지 남조선정권내에서 선거에서 패하면 당대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났지만 반대인 경우에는 《일등공신》으로 떠받들려 왔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안에서는 당대표 리준석에게 잘못을 따지는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힘》의 최고위원들을 비롯한 인물들이 현일나서 당이 내세웠던 득표목표를 달성하지 못한것은

리 행 이 나 페 지 나

《국민의힘》의 내부갈등은 여성가족부폐지공약의 리행문제를 두고서도 나타나고 있다.

당대표 리준석을 비롯하여 공약리행을 주장하는측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대두한것은 《토사구팽》이 아니겠는지. ...

《국민의힘》의 내부갈등은 여성가족부폐지공약의 리행문제를 두고서도 나타나고 있다.

당대표 리준석을 비롯하여 공약리행을 주장하는측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대두한것은 《토사구팽》이 아니겠는지. ...

《국민통합》, 빛좋은 개살구

얼마전 그 무슨 《국민통합》을 떠들어대는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도 등금이 있다》, 《한국사람들은 분명 시민이 아니고 어리석은 민초들이다》, 《하는 것이 민초의 것이라면 개나 돼지나 마찬가지로》 등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한다.

인민들을 설치루튀금하고 《먹을것만 주면 만족해하는 개, 돼지》로 여기던자들의 변태적인 관습이 또 발작한것이라 하였다.

이로부터 사람우에 사람이 없고 사람아래 사람이 없다는 말도 전해져오듯이

사람들 사이에는 천대만상의 차이가 있을수 있어도 존엄에서는 높고낮음이 있을수 없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시정잡배들은 남조선인민들을 《무지렁이로 끝자도 잘 모르고 혼돈에 약하고 시키는 대로 말 잘 듣고 복종 잘하는 민초》, 《속으로만 불만을 갖고 표현하지 못하는 백성》으로 갈라놓아 못해 《개, 돼지》라고 또다시 모욕하였으니 그것이 그들이 운운하는 《공정》이고 《정의》인 모양이다.

하기는 저들끼리도 《돌고래》, 《멸치》, 《고등어》로 등급을 가르고 상대를 앞잡아보고 멸시하며 때때로 싸움을 벌리는자들이니 인민들을 짐승의 반열에 놓는것쯤은 아무것도 아닐것이다.

이것은 《국민의힘》의 정치시정잡배들이 떠드는 《국민통합》이라는 것이 빛좋은 개살구, 싸구려광고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백히 보여준다.

인민들을 개, 돼지로 보는 《국민의힘》 것들에게 《돼지눈에는 모든것이 돼지 처럼 보인다》는 고사를 상기시키게 된다.

한일혁



리념과 지역을 따라, 계급과 계층사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사이, 세대사이에서 극심한 갈등과 대립이 조성되어있는 남조선에서 최근 남녀갈등도 최악에 이르렀다고 한다.

남조선의 어느 전문업체가 3월에 들어와 남녀 10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1년전에 비해 남녀갈등은 가장 눈에 띄우게 높아진 사회적갈등 유형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남조선여성들의 비참한 처지를 보면 왜 남녀갈등이 더욱 심각해지고있는가를 잘 알수 있다.

2021년 세계경제연단의 보고서에 남조선의 성평등지수 순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156개 나라들중 102위라고 하면서 남조선여성들의 인권 상황은 말할것도 없고 평균

임금도 남성의 67.7%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나라들중 가장 심각하고 더우기 성범죄 처벌이 미약하다고 전하였다.

형편이 이리함에도 남조선의 젊은 남성들속에서는 자기의 존엄과 지위를 찾기 위한 여성들의 《페미니즘》(여성인권옹호주의)운동을 《역

들도 남조선에서 《나도 당했다》라는 여성의 함성이 지금 《가장 먼저》라는 남성의 웨침에 묻히고있다고 평하였다.

남녀갈등이 이처럼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폐지를 부르짖으며 남

《국민의힘》 대표가 끌어올린 남녀갈등은 《국민의힘》의 《집》으로 남게 될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여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마초(남성우월주의자)적분배가 풍기는 공약이다》, 《성평등과 인권에 대한 몰리해를 드러낸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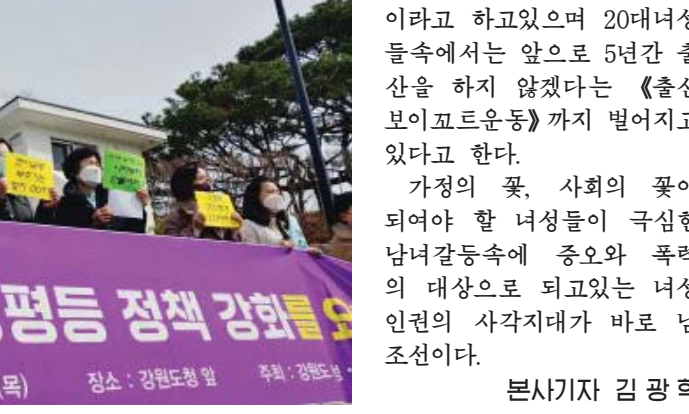
극심해지고 있는 남녀갈등

남녀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에 대해 남조선언론 《오마이뉴스》는 《국민의힘》이 여성에 대한 그릇된 반감을 정치수단화함으로써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고있다, 앞으로 여성들의 삶이 더 크게 위협받으리라는 우려가 커졌다고 평하였으며 《신동아》는

차별》을 조장하며 남성의 일자리와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는 운동으로 못마땅하게 여기는 경향이 다분하다고 한다.

지난해 남조선의 한 여론조사에서도 젊은 남성의 79%가 《성별때문에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외신

남녀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에 대해 남조선언론 《오마이뉴스》는 《국민의힘》이 여성에 대한 그릇된 반감을 정치수단화함으로써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고있다, 앞으로 여성들의 삶이 더 크게 위협받으리라는 우려가 커졌다고 평하였으며 《신동아》는



좁 세 기 적 인 악 법 을 휘 둘 러

— 《조선태형령》을 조작실시한 일제의 최악—

지난 세기 조선을 총칼로 강점한 일제는 우리 민족의 존엄과 권리, 자유를 깎고 빼앗고 사소한 반일적요소도 짓밟아버리기 위해 수많은 파쇼악법들을 조작하고 그것을 휘둘러 우리 민족을 가장 야수적인 방법으로 탄압학살하였다.

일제가 조작한 파쇼악법들 가운데는 우리 민족에게 중세기적인 태형을 적용할것을 규정한 악법도 있었다.

《조선태형령》은 1912년 3월에 《조선총독제령》 제41호로 조작되었다.

봉건사회에서 많이 적용하던 태형은 자본주의시기에 와서 형벌종류에서 삭제되었으나 일제는 20세기에 들어선 이후에도 조선에서 그것을 다시 부활시켜 가혹하게 적용하였다.

일제는 《조선태형령》을 《조선인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그 적용범위를 넓혀놓았다.

이 법은 《3개월이상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할 사람과

100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사람》중에서 조선내에 일정한 주소지 가지지 않았거나 재산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정상에 따라 태형을 적용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일제의 탄압정착으로 인하여 모든것을 빼앗기고 류랑하지 않을수 없게 된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탄압의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경장법칙규칙》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태형을 적용하게 하였으며 태형을 가할수 있는 권한을 헌병과 경찰에게까지 주었다.

이 악법은 검사와 즉결관인 경찰서장에게 범인을 감옥 또는 즉결서에 투지할수 있는 권한을 주고 태형을 비밀리에 적용할때 대해서도 규정하였다.

일제는 1912년 12월에 《훈령》 제40호로 조작한 《태형심득》에서 《태형은 수형자를 형률우에 얹어놓고 그 사람의 두팔을 좌우로 퍼서 형률에 묶은 다음 바지를 벗기고 궁둥이를 드러내

어 매질을 강하게 한다》, 《매를 칠 때 울부짖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물을 추진형으로 입을 틀어막는다》라고 태형을 집행하는 방법까지 규정해놓았다.

이처럼 《조선태형령》은 조선사람들에 대한 가혹한 민족적억압과 차별을 법적으로 확인하고 중세기적탄압을 강화하기 위한 극악한 파쇼악법이었다.

일제는 《조선태형령》뿐 아니라 《보안법》, 《사상범보호관찰령》을 비롯한 수많은 파쇼악법들을 조작하고 조선민족의 사상과 량심, 신념 등 모든 정치적권리와 자유를 범죄시키고 탄압하였다.

일제가 조작실시한 이 악법들에 의해 조선의 수많은 애국자들과 무고한 사람들이 악형에 시달리다가 교수대와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늘날까지도 조선민족의 피로 얼룩진 범죄의 역사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할 대신 과렴치하게도 저들의 과거범죄

를 정당화, 합리화하는 한편 제침야망에 들떠 무분별하게 날뛰고있다.

과거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야수적인 방법으로 탄압학살한 일제의 최악은 절대로 폄화될수 없는 만고죄악이다.

만약 일본이 조선민족을 비롯한 인류에게 저지른 과거죄악을 깨끗이 청산하지 않는한 섬나라의 미래는 영원히 암담할것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정치난쟁이의 거인흉내

한 특대형반인륜적범죄에 대해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고있는 추악한 정권박, 군국주의부활에 광분하면서 조선반도와 아시아에 대한 제침의 칼을 버리고있는 인류의 화근덩어리가 바로 일 본이다.

840만여명에 달하는 조선청장년들을 강제련행하여 죽음의 고역장과 전략전쟁터에 내몰았고 20만명에 달하는 조선여성들을 침략군의 성노리개로 삼은것을 비롯하여 일본이 저지른 특대형반인륜적범죄는 천추만대를 두고도 씻을수 없다.

천백만 사죄하고 배상해도 용서받기 힘든 대죄악을 저지르고도 낫새 하나 변하지 않고 도리어 강제련행과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비롯한 반인륜적범죄에 대해 《자발적》이니, 《매

이런 인간오물들이 정치대국, 군사대국의 흉내를 내며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이 되어보려고 뻔뻔하고있는것이야말로 정의와 인류의 량심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고 모독이며 난쟁이가 거인흉내를 내보려는것과 같은 해피하기 그지없는 짓거리가 아닐수 없다.

일본이 전범법, 정치난쟁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고 정상국가로 되는 길은 과거죄악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하며 군국주의부활과 제침책동을 걷어치우는것뿐이다.

그것이 없이 헛된 망상을 이루어보려고 말파하는것은 인류의 더 큰 저주와 규탄배격속에 종국적파멸을 앞당기는것이라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본사기자 김정혁

